

HS효성첨단소재, ‘영락애니아의 집’ 봉사·후원금 전달

장애인의 날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
장애아동들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후원금, 재활기기 구입 등 사용 예정

HS효성첨단소재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서울 용산구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2025년 장애인의 날 애니아 체육대회’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HS효성첨단소재 임직원 18명이 참여해 장애아동들과 함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달된 후원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이너시트 등 재활기



HS효성첨단소재가 17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HS효성

기 구입과 시설 내 노후 생활공간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2년부터 14년간 ‘영락애니아의 집’과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오며, 산책 도우미

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정기적인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7월 HS효성그룹 출범과 함

께 내건 슬로건 ‘가치 또 같이’ 실천의 일환이다. 조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유창호 전 후지필름 대표(오른쪽부터), 김명수 전 롯데물산 대표,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이찬석 롯데재단 사무국장이 ‘2025 롯데재단 상전(象殿) 신격호 展 : 그가 바라본 내일’ 평전 토크쇼에 참여한 모습.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재단, ‘故 신격호’ 토크쇼 진행

(롯데그룹 창업주)

평전 출간 기념 기획 전시 토크쇼
전직 CEO 9인 포함 약 80명 참석

롯데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무계원에서 ‘2025 롯데재단 상전(象殿) 신격호 展 : 그가 바라본 내일’ 전시 토크쇼 및 개막식을 진행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평전 ‘신격호의 꿈, 함께한 발자취 : 롯데그룹 CEO들의 기록’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전시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토크쇼에는 전직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 경영진이 참여해, 고 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롯데그룹의 변화 과정을 돌아봤다. 신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창호 전 후지필름 대표, 김명수 전 롯데물산 대표, 이찬석 롯데재단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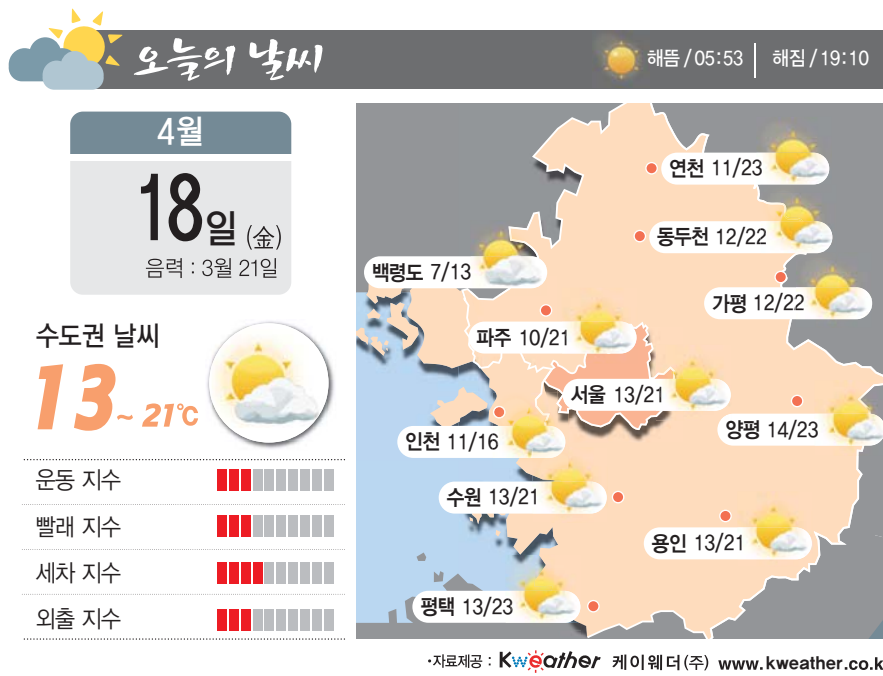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은 “현재는 잘못하고 있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해결할 수 있다. (과거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의 롯데랑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고(故) 신격호 회장의 생전 발언을 떠올렸다. 최근 롯데그룹이 처한 현실을 짚고, 기업의 더 큰 위기는 문제의 본질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고인의 통찰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크쇼 이후 전시회 개막식에는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과 평전 집필에 참여한 롯데그룹의 전직 최고경영자(CEO) 9인, 재단 임직원 포함 약 80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총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제1전시실 ‘기억 속의 순간들’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대표 경영 철학인 현장경영, 책임경영, 기업보국을 중심으로, 전직 롯데그룹 최고경영자들의 기억 속 한순간을 재현한 인공지능(AI) 일러스트 작품 4점이 전시된다. 제2전시실은 롯데와 함께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담은 공간이, 제3전시실에는 평전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故 구자두 LB그룹 회장, 발인식 엄수

LG가 2세대 사실상 마무리

고(故) 구자두 LB그룹 회장(사진)의 발인식이 17일 오전 11시에 엄수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고 회장은 지난 15일 향년 93세 나이로 별세했다.

1932년생인 구 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4남이자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이다.

LB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B인베스트먼트는 1996년 LG창업투자사로 출범했으며 2000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한 뒤 2008년 현재 사명인 LB인베스트먼트로 바꿨다. LB는 ‘Look Beyond’의 앞 글자를 따온 약자다.

LB그룹은 이후 LB인베스트먼트와 LB자산운용, LB세미콘 등 6개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장남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부회장



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특히 구 회장은 1980년대 말 발족한 정보통신진흥협회 초

대회장에 올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구 회장이 별세하며 이제 LG가 2세대는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자 부회장, 차남 구본완 LB휴넷 대표, 딸 구혜란·혜선씨 등이 있다. 장남 구본천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다.

/차현정 기자 hyeon@

백세합창단, ‘국제시니어합창제’ 최고상

국제교류상·상금 10만엔 수상
92세 정의석 단원, ‘장수상’ 받아

백세합창단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4회 국제시니어합창제’에서 외국 참가 합창단 가운데 최고상인 ‘국제교류상’을 수상했다. 92세 단원 정의석씨는 무대 위에서의 활력과 존재감으로 ‘장수상’을 받았다.

지난 14~16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에서 열린 이번 국제합창제에는 총 5개국 113개팀이 참가했다.

백세합창단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과시하고, 국제적 음악 교류에 기여한 단체’로 선정되어 상장과 함께 상금 10만엔을 수상했다.

주최측인 NPO법인 골든웨이의 요시다나미코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아

름답고 조화로운 연주를 펼쳐주셔서 감동받았다”며 “백세합창단의 활력이 양국간의 가교가 되고, 국제교류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세합창단은 2020년 창단된 한국 최대 규모의 시니어 합창단으로, 평균 연령 74세, 50대부터 90대까지의 단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경섭 백세합창단장은 “앞으로도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합창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국내외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상을 받은 정의석 단원은 “노래는 나에게 삶의 활력소”라며 “일본에서 20년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무대는 내 삶의 또하나의 감격적인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한항공, 에어테이저 전문교관 양성 교육

최근 항공기 탑승객의 돌발행동으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객실안전교관을 대상으로 에어테이저(발사식 전자충격기) 전문 교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제2호 탄소중립의 숲’ 조성

현대백화점그룹이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손잡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대규모 숲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목리에서 ‘제2호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오른쪽부터)과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일동제약, ‘하트하트 아트앵커’ 설립

일동제약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ESG 경영 확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하트하트 아트앵커 설립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트하트재단은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국제개발협력 전문단체로,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및 발달 장애인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해외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동제약



우리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협력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SBI저축銀, 청소년복지 6000만원 지원

SBI저축은행은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부금 6000만원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와 김병운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